베트남 종교계, 코로나 피해 위로 · 화합

가톨릭 종교인들,
베삭데이 앞두고
불교 장애센터 방문
코로나19 피해 위로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계 장애아동시설에 방문한 카톨릭 종교인들. 사진출처=카톨릭아시안뉴스연합

"우리 센터에 신부님들이 방문해줘서 너무 기뻐요."

베트남 종교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들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베삭데이를 앞둔 시기, 불교계가 운영하는 장애아동돌봄센터에 가톨릭 신부들이 방문,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이웃 종교 간 화합의 장을 열었다.

지난 5월 12일(현지시간) 베트남 중부 후(Hue) 도시에 위치한 불교계 장애아동 돌봄 센터 '롱소(Long Tho)'에 가톨릭 신부와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방문해, 자폐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청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 아동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함께했다고 가톨릭 아시안 뉴스 연합(Union of Catholic Asian News)이 13일 보도했다. 종교인들은 이날 롱소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전통 놀이 등을 함께 하며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두 종교 간 이번 만남은 남방불교의 최대 행사인 '베삭 데이'를 기념한 것이다. 베트남 불교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오프라인 베삭 데이 행사를 대거 취소했다.

롱소의 틱 누 톼이 응힘(Thich Nu Thoai Nghiem) 비구니 스님은 "센터는 주로 지역 후원자들과 관광객들의 보시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겨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가운데 센터를 방문해 준 가톨릭 신자들에게 감사한다. 선물에 크게 감동했다"고 반가워했다.

후 시내에 위치한 성심성결교회의 조셉 판 탄 호(Joseph Phan Tan Ho) 신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사람들에게 성인(聖人)들의 사랑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돌보는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우리는 여름 기간과 각 종교의 중요한 행사 때 서로를 방문하고 돕는 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이웃 종교인들의 방문에 장애 아동들도 즐거워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응옌 반 미(Nguyen Van My, 16) 아동은 "네 식구인 우리 가족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빠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면서 매일 출근 전 나를 센터에 등원시킨다. 엄마는 왼쪽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이라면서 "신부님들이 센터에 오시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쁘다"라고 했다.

다낭으로부터 온 후원자 마타 트란 티 호아 톰(Martha Tran Thi Hoa Thom)은 "장애 아동들을 위한 종교 간 화합은 공동 번영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교육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웃어보였다.

응힘 스님 등 5명의 비구니 스님들에 의해 2007년 설립된 롱소는 후 도시에서 유일한 불교계 장애 아동 돌봄 센터다. 현재 3명의 비구니 스님과 12명의 교사가 87명의 고아 및 장애 아동들을 보살피고 있다.

가톨릭 아시안 뉴스 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베트남 내 장애인들 중 82%가 건강에 대해, 96%가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했다"며 "재정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불교계, 국제 베삭데이 온라인 봉행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등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각국 온라인 활용키로


지난해 보로부두르 사원의 베삭 행렬. 사진출처=자카르타포스트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그리고 열반을 기념하는 국제 베삭데이(International Vesak Day)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화제다. 지난 5월 7일 '자카르타 포스트'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의 외신은 코로나19 사태로 불교 최대 행사인 베삭축제가 온라인 스트리밍 등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국제 베삭데이는 세계각국의 달력에 따라 달리 전하는 부처님오신날을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 1999년에 UN에서 정한 봉축일로 매년 5월 보름에 해당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월 7일 국제 베삭데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자카르타 포스트'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베삭 기념행사를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불교공동체 위원회는 "공간적 특성상 각 사찰에서의 봉축행사를 금지하고, 각 가정에서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국제 베삭데이를 기념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봉축행사는 인도네시아 불교 의례에 따라 중계됐다.

온라인 봉축예불을 참여한 한 대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베삭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불교공동체 위원회의 드라고노 교수는 "비록 베삭축제가 가상화 됐지만 불교도로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베삭의 의미는 그대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평했다.

싱가포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이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베삭축제가 취소됐다. 싱가포르는 이에 '스트레이트 타임즈'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베삭 기념행사를 보도했다. 기념행사에서 싱가폴 정부는 "불교의 가르침인 자비, 이해, 회복은 감염병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바이러스의 조기 종식을 도와줄 것"이라고 공식 봉축메세지를 발표했다. 또한 봉축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싱가포르 불교포교단(Singapore Buddhist Mission)은 국제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다. 봉축을 주제로 한 이 온라인 콘서트엔 싱가포르와 해외 불교음악가들이 참여했다.

페이스북으로 진행된 베삭 기념행사에 참여한 14세의 학생은 "베삭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다.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법문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낀다.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리랑카 '유씨에이 뉴스' 역시 스리랑카 각지의 베삭행사가 취소 됐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예정됐던 베삭행사를 중지했으며, 베삭데이 당일에는 사찰 인근에 거주하는 소수의 불자들만이 사찰을 찾았다. 취소된 행사를 대신해 스리랑카 사찰들은 온라인을 통해 베삭기념 행사를 중계했다.

또 베삭데이를 기념하여 스리랑카 스님들은 그동안 지역과 가정에서 파손된 채 방치 되어있던 불상들을 수습해 다비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파손된 불상들은 스리랑카 남부의 보디라자(Bodhiraja) 사원에서 백단향 나무로 다비됐다.

김민재 객원기자

캄보디아 · 태국, 불교행사 전면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예불 · 법회 등 취소 이어져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전을 염송하는 캄보디아 스님들. 사진출처=더스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남아 각국의 불교행사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매체 '더스타 닷컴'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현지보도를 인용해 안타까운 상황을 보도했다.

먼저 태국 방콕의 랏프라오(Ladprao) 사원에 상주하는 프라 수라삭 슈딴토(Phra Surasak Suthanto)스님은 "사찰의 예불과 다양한 행사는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다. 보시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는 신자들의 수가 급감했다. 현재 스님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스님은 "생활에 필수적인 탁발마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아침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1~2미터의 거리를 두고서 불자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라삭 스님은 "현재 사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례는 장례식이다. 며칠에 걸쳐 장례식이 이루어지지만 현재는 기간을 단축해 진행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4월 중순부터 새해 행사인 송크란 축제를 취소했고, 불특정 다수의 집단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제 베삭데이를 앞두고 태국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원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봉축행사에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각 사찰들은 정부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수백 명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찰을 방문해 베삭데이를 기념했다. 프놈펜에 소재한 왓 오우날롬(Wat Ounalom)사원의 주지스님은 "지난 4월부터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교육했다. 베삭데이 당일엔 1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 문화 · 종교부 대변인은 "출입객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사찰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방문객과의 거리를 최소 2미터 유지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참배객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귀가했다"고 밝혀 이동범위가 최소화 됐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자비 베푼 남성 스님에게 총격

쉴곳 · 음식 제공했으나
술 버릇 꾸짖자 스님 살해


태국에서 스님이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출처 CTN.

태국에서 스님이 살해를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님이 술에 취한 시민을 비난하자, 총으로 스님을 쏜 것이다.

태국 언론 CTN뉴스의 5월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44세의 남성 사콜 폼통(Skol Pumthong)은 이날 태국 북부 람팡(Lampang) 주(州)의 한 숲에서 스님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피해자는 69세의 프라 번드힛 프롬엄(Phra Bundhit Prom-iam) 스님이다. 스님의 시신은 지난 9일(현지시간) 람팡에 있는 솝 모(Sop Moh) 마을 인근 숲에 정차된 트럭에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됐다. 총으로 머리를 관통당해 숨진 상태였으며, 심각하게 부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건 현장 주변을 탐색하던 경찰은 숲 인근에 숨어 있던 사콜을 수상하게 생각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스님이 술을 마시는 것을 비난해 총으로 쐈다고 범인이 자백했다"며 "범인은 스님이 트럭에 타기를 기다렸다가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님이 생전 그에게 쉴 곳과 음식을 제공했던 점이다. 사콜이 알콜 중독을 이유로 아내에게 쫓겨나 숲으로 오자, 스님은 약 열흘 간 오두막에서 그를 머물게 하고 음식, 물 등을 제공했다. 사콜은 "스님이 술버릇에 대해 꾸짖어서 홧김에 총으로 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